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맞춤지원으로 청년 니트 고착 막아야

〈NET〉

‘그냥 쉬었음’ 상태 청년 2024년 상반기 1만5천명

전북연구원, 윈스톱 통합 지원센터 등 정책 제안



이불·비닐로 과일 동파 예방

연일 쌀쌀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과일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담요가 덮여져 있다. (사진=뉴스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상태의 청년 니트(NET)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지역 청년 니트의 규모와 특성을 정밀 진단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개입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북의 ‘쉬었음’ 청년은 1만5,28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북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12.8%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19.2%)보다는 낮지만 약 1,5만 명의 정책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특히 전북은 전국과 달리 20대(7,664명, 50.1%)와 30대(7,619명, 49.9%)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7,182명으로 ‘쉬었음’ 청년 규모가 가장 크고, 군산(1,675명), 완주(1,305명), 김제(1,153명), 정읍(1,084명), 익산(1,032명) 등이 뒤를 잇는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청년 비중은 진안(34.5%), 고창(32.8%), 순창(30.4%)이 전북 평균(12.8%)을 크게 상회해 도시권은 규모 기반의 서비스 설계, 군 지역은 고

위험군 비중 관리와 접근성 보완이 필요한 구조를 보인다.

전북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유형은 취업준비·구직형(2만4,158명), 돌봄·가사형(2만1,806명), 비구직형(쉬었음, 1만5,283명)이 핵심 축을 이룬다. 특히 20대 후반에는 취업 준비·구직형이 급증하고, 30대 중후반에는 돌봄·가사형이 주류로 전환되는 등 연령별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청년 니트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토대로 △예방 중심 지원

△‘쉬었음’ 3개월 이상 진입 시점 조기 개입 △유형별 맞춤 지원 △경로 기반 일 경험(직무탐색→현장경험→체험) △고용·복지·정신건강 등 통합지원 등 5대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장기 ‘쉬었음’ 고착을 막기 위해 서비스 미이용, 반복 실패, 장기 비경제활동 등 핵심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훈련 복귀 전환을, 고용 유지율(3·6개월), 서비스 참여 지속률, 회복

지표(고립·우울 등 개선) 등 과정 및 성과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 청년 니트 문제는 단순한 고용 부진을 넘어 지역 소멸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 중대한 이슈라며 “조기 개입과 함께 고용·복지·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윈스톱 연계를 표준모델로 정착시키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설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도민 의료기관·약국 이용 불편 최소화, 대량 응급환자 발생 대비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민들의 의료기관·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연휴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14개 시·군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접

감할 계획이다. 응급·재난·감염병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연휴 기간 도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20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응급의료 기관의 과부하를 줄이고 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의료기관 459개소와 약국 240개소가 운영된다. 특히 소아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달빛어린이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실도 정상 운영된다.

연휴 기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119구급대와 협력한 신속 이송·전원 체계를 운영한다. 권역모자의료센터 1개소(전북대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 2개소(원광대

병원·예수병원), 분민의료기관 19개소 간 핫라인과 현황판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 콜센터(☎120), 도 및 시군 보건소홈페이지 포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과 ‘응급의료포털(www.emark)’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설 명절 기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도와 14개 시·군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이만호 기자

## 전라·호남선 고속열차 경부선 수준으로 운행

민주 이원택 의원, “호남·전라선 열차 운행 40% 이상 확대”... 전북 교통 소외 해소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현행 호남선 고속열차 운행에 40% 이상 확대하면서 전라선 고속열차도 같은 수준으로 늘려 나가기로 해 전북의 구조적인 교통 소외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열차의 운행이 경부선 고속열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며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교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호남선 고속열차 운영을 경부선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경부선은 평일 기준 하루 115회, 주말에는 136회의 고속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선은 평일 6회, 주말 7회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좌석수 역시 주말 기준 경부선이 하루 17만7,000석인데 비해 호남선은 6만8,000여석에 불과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

또한 열차 편성에서도 격차 뚜렷한 점은 경부선에는 900석이 넘어선 대형 고속열차가 주력으로 투입된 반면 전라선을 포함한 호남선에는 400석 안팎의 소형 편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차 간격 역시 경부선은 10분 내외인데 비해 호남선은 20분 안팎으로 벌어져 있다.

특히 전라선 고속열차는 호남선보다도 더 적게 편성되고 작은 열차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의 좌석 점유율이 100%를 훌쩍 넘기면서 도민들이 애초부터 표를 끊을 기회도 없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적은 실정이다.

이 의원이 경부선과 전라, 호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열차의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도민들이 고속열차표를 구하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열차 편성을 현행보다 각각 4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소형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을 대형 위주로 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익산역 또는 전주역으로 오가는 고속열차 중 일부가 세 대진 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직선으로 갈 때보다 30~40분 가량 더 걸리는 우회를 줄여 ‘서울~전주 1시간대 서울~여수 2시간대’ 이동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군 단위 지역 주민들도 한 번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열차 도착·출발 시간에 맞춘 일반열차 시간표를 전면 재구성해 ‘버스 시간에 나를 맞추는 전북’이 아니라 ‘열차 시간에 맞춰 어디든 갈 수 있는 전북’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권희성 기자

**고창군**

겨울마저 한 장면이 되는 곳,

# 고창

고창음성 · 고창정보리발